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강 대 선

(부산대학교)

류 기 형

(부산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법적·행정적 제도화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지역사회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 중 주민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연대감과의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증진 전략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은 참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을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지역사회 주민-문화적 자산중심의(residents-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다.

주제어: 지역사회 문화적자산, 지역사회정신, 지역사회응집력, 지역사회참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서론

최근에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법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하향식, 전문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주민의 직접적 참여 및 책무성을 강조하는 실질적 지역사회참여로의 변화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계획과정의 매우 핵심적인 과업이 되었다.

지역사회참여는 공식적 정부의 정책 및 계획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주민 개개인 및 지역사회조직의 제반 활동인 주민 및 지역사회조직, 정부기관간의 의사결정에 대한 상호작용 과정(Lahiri-Dutt, 2004: 14)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대일 원조,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하는 지리적으로 한 지역사회 내에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행하는 포괄적 의미의 참여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참여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법 앞의 평등, 생활의 질 향상, 지역성의 중시와 함께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기본 이념(이영철·서화자 역, 1996)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역사회 임파워먼트, 복지서비스 수혜 및 활동의 기회보장,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 자기결정권과 민주주의 확대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가져 올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복지 증진의 수단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류기형, 2004; Berner and Phillips, 2005). 특히 주민들의 지식과 역량은 참여를 통하여 공적으로 활용될 때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자산이 되므로, 계획과정에서의 실질적 지역사회참여는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다.

이 같은 지역사회참여를 정책과 계획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역정부의 제도화 노력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계획과정에서의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비교적 약화시켰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일정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재에도 지역사회참여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고, 또한 관료제가 후원하는 형식적이고 보통 이상의 주민의 능력을 요구하는 공적 관여 활동(officially-sponsored public involvement)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Connelly, 2006: 16). 즉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특성과 문화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Kotval, 2005: 76) 채 공식적인 법적·행정적 참여기제 확대에<sup>1)</sup>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는 결과적으로 일방적이고, 지역사회의 투입(input)이나 보충(buy-in)이 없는 비 포괄적 또는 비 통합적 계획(Kotval, 2005: 82)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주민 개개인이 갖는 특성과 지역사회환경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이 인식과 경험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형성한 지역사회 문화<sup>2)</sup>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접근의 기본적 가치는 생활 속에서 실제화 되는 지역사회 정신(community spirit)<sup>3)</sup>이

- 1) 각종 자문 및 운영 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지역사회문화는 사회제도, 규범체계, 신념, 가치와 세계관을 포함한 개인의 생활을 형성하는 영향력의 망(web)과 집합적 매트릭스에 관계하는 것(Corin, 1994; Williams, 2004 재인용, Snow, 1965; 이희선·윤상오, 1996 재인용)
- 3) 지역사회 정신은 주민 개개인이 그들의 생활양식(way of life)에 체화된(embedded) 의미와 정신을 추구함에 따른 각각의 지리적 지역사회 및 문화 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주민 간 및 그들의 생활

어떻게 주민 개개인의 삶 속에 공동체성으로 내면화되었고 또한 구체적인 참여 행동으로 표출되는(한상일, 2003: 407)가를 본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정신이자 문화인 지역사회응집력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사람들이 지역의 정치적 혹은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응집력으로 시스템 내 구성원간의 유대와 참여 및 연대감과 관련된 개념이다(Dekker and Bolt, 2004: 2). 또한 사회적 배제와 소외상태의 반의어인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 및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과 연관되고(Hummon, 1992; Lev-wiesel, 2003 재인용), 공동체주의, 시민사회 및 적극적 시민정신, 시민쇄신(civic renewal)의 물결 등으로 표현되는 지역사회참여와도 부합된다(Dinham, 2006). 그러므로 응집력 있는 사회는 뭔가 좋은 것으로 인식된다(Phal, 1991). Durkheim도 ‘응집력 있는 사회는 서로간의 도덕적 지지가 풍부하다는 것을 특징으로 개인을 그 자신의 힘으로 버티어 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에너지를 공유하고 지쳤을 때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신영전·김명희·전희진·김석현 역, 2003). 따라서 지역사회응집력은 공동체로 이어지는 지역의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고, 지역사회수준과 개인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겠다.

지역사회수준(중범위수준)의 응집력은 지역사회구성원간의 지역사회 목적이나 지역사회 자체에 참여하려는 준비성 및 동일시하는 정도로서(Hart and Knol et al., 2002; Dekker and Bolt, 2004 재인용), 스포츠 팀의 집단응집력처럼 구성원에 의해 느껴지는 심리적인 힘(Lewin, 1951; 김재현, 2003 재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가치관이나 규범을 공유하는 정도, 사회적 통제력,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존재와 접근가능성, 지역주민간의 신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집단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성과 의지의 정도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응집력의 양은 주민들의 사회적 접촉과 공유된 가치와 규범, 지역사회에 대한 동일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 인식(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Brower, 1980; Lev-Wiesel, 2003 재인용).

개인적 수준(마이크로수준)의 응집력은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접촉에 대한 개인적 참여에 초점을 둔다. 즉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사회적 제도, 사회적 접촉 속의 개인적 참여와 관련하고, 집단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개인적 지향과 관련된 것(Schuyt, 1997; Deckker and Bolt, 2004 재인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정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사회응집력의 영역은 지역사회 지향의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 애착감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중 가장 기본적 요소는 사회적 접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존경, 도움, 서비스 교환, 지식 및 정보교환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Castells, 1997).

지역사회의 응집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근거이자 결과인 인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응집력의 정도가 차이난다고 밝히고 있다(Wirth, 1938; Morrison, 2003; Vandermission, 2003). 즉 주민들의 성, 거주지에서의 거주기간, 연령, 가족구성,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주민의 사회 인구

---

환경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개인적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와 연결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Fabry, 1980; Chile and Simpson, 2004: 318 재인용).

학적 배경에 따라 지역사회 응집력의 정도는 달라지고, 주로 근린생활환경 내에 주민 참여행동으로 나타난다(Ziersch, Baum, MacDougall and Putland, 2005: 80-81; Deckker and Bolt, 2004: 6-8; Lev-Wiesel, 2003). 그러므로 지역사회응집력은 근린 생활환경에서 가장 잘 관찰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개역할을 한다고 개념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Lev-Wiesel, 2003: 1). 즉 지역사회주민들의 인구구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지역사회응집력은 결과적으로 참여행동의 차이를 초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참여정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는 인과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문화적자산 중심의(communitary residents- cultural asset driven) 통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산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관계를 활용한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영역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개별 영역의 증가가 자동적으로 좀더 많은 전체적 사회적 응집력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않는다(Dekker and Bolt, 2004)<sup>4)</sup>는 것과 지역사회참여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각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지역사회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무엇인가?

셋째, 지역사회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지역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각각의 경로관계 모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역사회참여 경로관계 모형은 무엇인가?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 1) 지역사회응집력의 개념과 정의

지역사회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정한 지리적 경계, 상호작용, 공동의 연대가 하나로 통합된 실체로서(Hillery, 1995; 강대기, 2003 재인용), 주로 인식되고, 가장 기본적 요소는 인간과 인간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적 폐쇄의 범위인 공간적 경계선과 이에 따른 공간적 정체성<sup>5)</sup> 및 사회적 헌신(social devotion)을 형성시킨다.

이러한 특정 공간과 결합된 주민의 인식적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응집력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다양한 정의들을 분류해 보면 ① 연대감: 이는 집단에 대해 가지는 깊이 공유된 정체성과

4) 즉 지역사회응집력의 각 영역의 영향력은 차이가 나타난다(Dekker and Bolt, 2004: 20).

5) 공간을 인간의 인지구조와 연결시키는 시도로서 구조심리학이 있는데, 구조심리학은 살아 움직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사이에 구체적인 의미관계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인간은 규정된 공간 안에서 또는 그 공간에 대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다(Duckheim, 1931; 남상희, 2001 재인용).

가치 ② 소속감: 집단 내 혹은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과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승인의 느낌으로,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혹은 집단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사기(morale) ③ 상호지지의 네트워크: 소외감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접촉으로서, 믿을 수 있고 안정적 구조의 일원이라는 느낌 및 원조에 대한 믿음 ④ 장소애착 및 장소감: 장소와 사람간의 공유되는 상호 돌봄의 감정한 장소에 오래 거주할 경우 자연 발생하는 문화적 소속감이자 개인적 강점인 착근성(rootedness), 환경에 대한 믿음·선호·가치·목적 등이 자아차원으로 발전되는 장소정체성으로 개념화되는 장소애착이다(Lev-Wiesel, 2003: 332-335; 최열·임하경, 2005: 53-55 재정리). 그러므로 사람들이 특정 장소와 사람들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는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지지, 멤버십, 공유된 가치라는 사회적 접촉의 연결성(connectivity)과 정보교환의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되고(Stocker, Green and Newth, 2001: 1-2), 또한 주거지를 포함한 사회·물리적 환경과 주민 개개인사이에 발생하는 경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Steele, 1981; Altman and Low, 1992; 최열·임하경, 2005 재인용).

이러한 사회응집력은 지역사회수준에서 나타날 때 크게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애착감의 3가지 영역으로 개념화된다고 하겠다(Dekker and Bolt, 2004: 3-5).

### (1)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족,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조직, 스포츠클럽과 같은 공식적 지역사회조직의 소속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의 유대와 관련된다. 즉 참여 및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데, 좀 더 공식적 참여는 비공식적인 유대에 기초한다고 알려지고 있다(Dekker and Bolt, 2004: 3).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접촉이라는 연결성과 정보교환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구조이므로, 지역의 네트워크는 주민들의 관계의 유형을 알 수 있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Stocker, Green and Newth, 2001).

사회적 접촉은 기본적으로 동질성과 유사성 및 기회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는 데, 연령, 가족구성, 성, 생활스타일, 교육수준, 소득수준 및 거주기간들에 따라 다르게 분포된다. 즉 노인이, 아동 및 보호대상자를 가진 가족이, 저학력, 저소득,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and Lee, 1992).

그러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정도는 지역사회참여와 연관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도와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의 편안함 정도로서 측정될 수 있다.

### (2) 지역사회연대감

연대감은 지역의 본질적 요소로서, 공유된 정체성과 지역적 행동의 코드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에 기반한다(Bhattacharyya, 2004; Procter,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연대적 문화 속에 주민들은 가치와 목적의 공동성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타 구성원들의 복지를 지원하려는 의지로 나타난다. 즉 지역사회연대감은 개인적 혜택과 함께 집단적 행동 및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겠다(Kearns and Forrest, 2000). 특히 지역사회연대감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달리, 지역주민간의 동질성의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일부분이라고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연대감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참여의 적극성 정도로서 측정될 수 있다.

### (3) 장소 애착감

Canter(1997)는 장소란 개인이나 단체의 경험이 투영되어,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식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최열·임하경, 2004 재인용). 보통 사람들은 장소에 대하여 사람에 대한 애착과는 구별되는 어떤 매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에 대한 심리(psychology of place)인 애착감은 사람과 주거를 포함한 사회·물리적 환경에 대한 동태적·지속적 유대감을 뜻한다(Altman and Low, 1992)고 할 수 있고, 개인이 공간적 소속감을 느끼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소애착감은 장소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 상호 돌봄의 유대감 및 소외의 반대이면서 개인적 강점인 착근성(rootedness), 과정으로서 장소에 대한 친숙성, 개인이 살아온 장소에 기반한 자기감(a sense of self)으로 나타나는 정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Lev-Wiesel, 2003). 이러한 장소애착감은 안전감을 느끼게 하고, 자긍심과 자아상을 형성하고, 사람, 문화 및 경험에 대한 유대감을 제공하며 집단 정체성을 유지시킨다(Altman and Low, 1992; Crow, 1994; Dekker and Bolt, 2004 재인용).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우리 집, 우리 동네라는 표현 속에 장소애착감이 자주 드러나는 데, 이 속에는 구성원들의 안전감, 평온함, 친밀감, 소속감, 행복감, 애정감,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장소임이 은연중에 드러나 있다. 즉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감으로 측정될 수 있다(Lev-Wiesel, 2003; 신영전 외, 2003; 최열·임하경, 2005).

## 2) 지역사회응집력의 관련요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사회·인구학적 관련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연령, 사회계층, 라이프스타일, 종교, 인종과 성, 가족구성 및 가족의 아동 유무, 교육수준, 지역사회에 살아 가야할 시간 및 거주기간, 연령, 소득수준, 주택소유 등을 들고 있다(Dekker and Bolt, 2004: 7).

첫째, 성이다. 보통 여성 특히 아동을 가진 여성은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이나 조직과 사회적 접촉을 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접촉 및 관계를 지향한다(Campbell and Lee, 1992). 특히 한국에서 새마을 부녀회 등 읍·면·동의 행정지원활동 및 각종 자생조직에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적극적인데,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유대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활동 범위가 좀 더 거시적이고 외부적인 접촉과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장애유무 및 장애가족이다. 보통 장애인들은 이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 및 관계의 범위도 함께 제약된다. 이울러 장애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전반적 부양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외부 지역사회와의 접촉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족구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그들 대부분의 시간과 활동을 보내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셋째, 연령이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이동에 대한 신체적 제한과 현 장소에서 오랫동안

안 살아왔고, 또 살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일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존성의 표현이기도 하다.

넷째, 교육수준이다. 고학력의 사람들은 그들의 활동과 네트워크에 있어 좀더 전체적인 도시상황을 지향하고(Blokland-potters, 1998; Dekker and Bolt, 2004 재인용), 좀더 거시적 행동 반경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저학력의 사람들은 좀더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 접촉과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대학과 관련되는 데, 대학진학은 직장을 결정짓는 요인이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다. 또한 일정기간의 교육년수를 필요로 하고 직장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타 지역사회로의 이동경로이기도 하다.

다섯째, 종교이다. 종교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 등의 실천 교리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응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직업이다. 직업은 교육과 소득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표적 측정지표이다. 직업이 있거나 없다는 것은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질과 방향을 결정짓는다. 즉 직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신영전 외, 2003). 또한 직업의 종류에 따라 사회계층화가 달라지는 데<sup>6)</sup> 보통 하위직 계층의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접촉의 범위를 가질 경향이 전문직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소득수준이다(가계 재정력). 저소득 가구는 활동에 돈이 들기 때문에 참여 활동에 장애를 받는다(Mustard and Ostendorf, 1998). 결과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좁은 참여의 반경을 가지고(Wilson, 1987), 재정적 제약 때문에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접촉과 관계 맺기를 지향할 것이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거주기간이다. 단기간에 체류할 예상을 하는 사람들(학생, 신혼가구 등)은 보통 지역사회내의 접촉과 거주환경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장소를 마지막으로 머물 장소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Campbell and Lee, 1992). 반면에 장기간의 거주 및 현 지역사회에 최종 정착한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정체성을 더욱 가질 것이다.

### 3)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 및 연구모형

사회적 응집력이 강한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보다 동료 주민들을 더 신뢰하고, 연대와 평등을 더 존중하는 경향을 보인다(신영전 외, 2003).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행동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서로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한다(Keames and Forrest, 2000).

참여는 행동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에 기반하고, 강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한 지역사회연대감, 강한 지역사회감, 지역사회에 대한 믿음 및 자발적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증가하고(Dochery and Goodlad et al., 2000) 또한 실제 삶의 활동에서 잠재적 유대관계를 실현할 때 일어난다.

6) 직업위신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 홍두승·구해근(1996: 176)에 의하면 정부행정공무원이 50점, tv 수리공, 용접공, 단순노동자, 어부 등은 40점에서 22점 사이의 직업위신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회적 행사 참여, 직업적 혹은 사회적 역할 참여, 교회에 다니는 것, 시민사회조직 참여뿐만 아니라 친구와 어울리기, 이웃에게 자그마한 혜택을 주는 것 등의 일대인 대면적 원조<sup>7)</sup> 모두 지역 사회 참여의 예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사회참여도 주민들이 형성하는 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요인으로 김정민(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고졸이, 남성, 30대와 40대가 지역사회조직 참여율이 높았고, 또한 김정민은 지역애착심을 신문구독률로 파악하였는데, 남성과 대졸자가 높았다. 윤준상(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민참여운동수준에 지역사업관심도, 정치·행정 참여감, 소득, 성별, 소득수준, 지역사회만족도, 지도자 경험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경로모형 설정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응집력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같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에서 발전된 신뢰관계에서 보통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 연결성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참여의 기회를 통하여 부모·가족·직업·공동체의 역할 등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정의하고 강화하는 데, 이것들은 가치와 소속감 그리고 애착의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유대가 강하면, 좀 더 많은 지역사회참여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Dipasquale and Glaeser, 2001; Ziersch, Baum, MacDougall and Putland, 2005 재인용). 그러므로 지역사회응집력은 Lev-Wiesel이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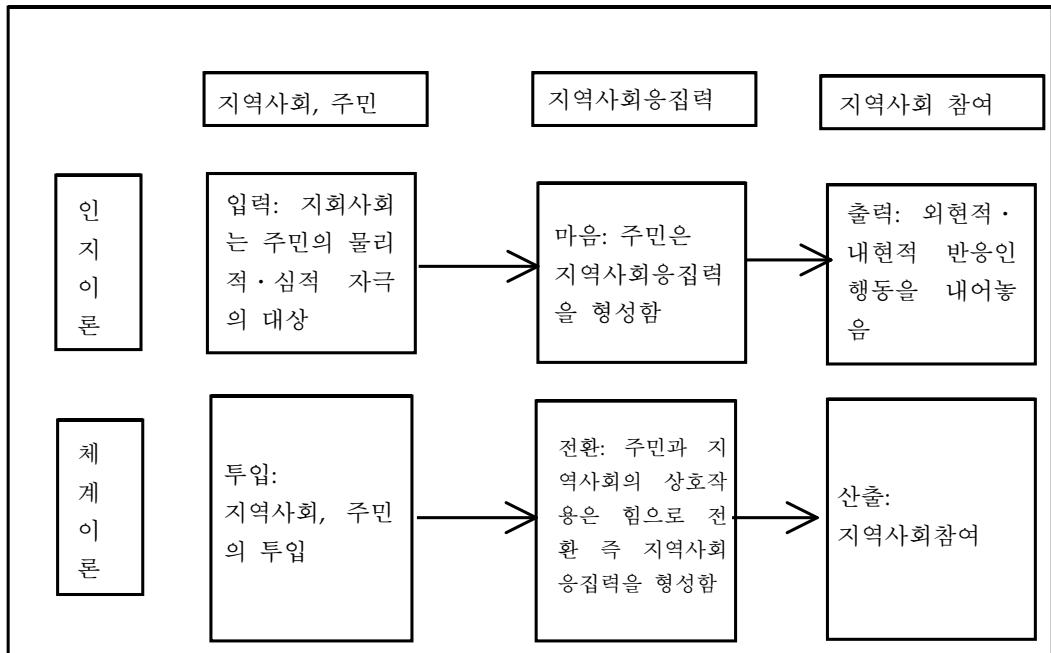
둘째, 지역사회참여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이념이자 원칙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실현, 인권옹호의 기본조건이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참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응집력은 지역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전략 및 수단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지이론으로서 현실에 있어서 마음에 작용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조건인 자극 또는 입력을 (I)라 하고, 이 자극 또는 입력을 받아 이에 작용하는 마음을 (M)이라 하며, 그 경험의 결과로 인간이 어떠한 형태의 반응 또는 출력을 내어 놓은 것을 (O)라 한다면 지역사회응집력은 지역사회라는 자극에 대한 마음 또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지역사회참여는 반응 또는 출력이라고 할 수 있다(이정모, 2001). 이 과정은 시스템이론에서 투입과 전환, 성과 및 산출과정으로 나타난다. 즉 주민과 지역사회가 투입물이 되어, 이 둘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지역사회응집력으로 전환되고, 결국 지역사회참여라는 산물의 과정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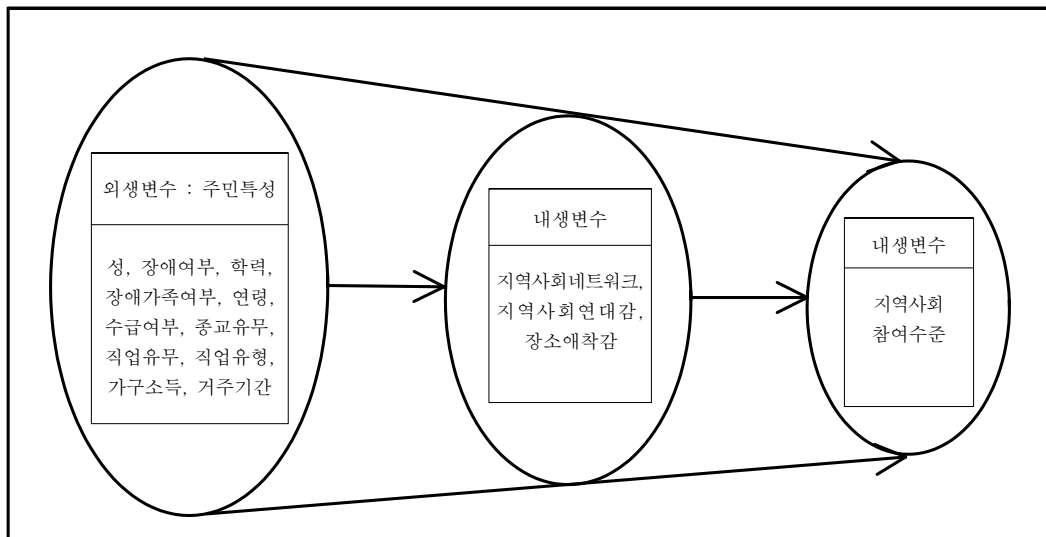
7) Williams(2005)는 일대일 대면적 원조 활동을 비공식적 지역사회참여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 외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논의는 Fraser, 2005. "Four different approaches to community participatio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feb. 25 참조하기 바람.





<그림 1>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인지이론 및 시스템이론적 분석 틀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rationality)를 배경으로 하여, 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지역사회응집력의 3가지 영역과 지역사회참여의 인과관계를 경로모형(Pathdiagram)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대한 경로모형(Pathdiagram)

### 3.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제주도 주민이었고(2004. 12월 현재 약 412,000; 제주도청),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 편의표집이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003부이었고, 조사대상이 모집단을 대표할 정도로 충분한 사례수(약 1,001명 이상)가 되도록 하였다.<sup>8)</sup> 조사는 설문지 발송을 통한 자기기입식 보고와 본 연구자의 직접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예비조사는 2005년 7월5일-20일 사이에 민간사회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5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과 시민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 소속 회원 10명 및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및 문항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구조화된 설문지를 완성한 후, 2005년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이고 내생변수는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수준이다. 주요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외생변수

외생변수인 사회 인구학적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지역사회응집력의 사회 인구학적 관련요인들인 성, 장애여부, 장애가족 여부, 연령, 학력, 수급여부, 종교유무, 직업유무, 직업유형, 가구소득, 거주기간이다(<표 1> 참조).

<표 1> 분석에 사용된 외생변수의 기술표

변수	척도/ 코딩	변수	척도/코딩
성	남자(0)/여성(1)	종교유무	종교 없음(0)/종교있음(1)
장애여부 /장애가족여부	장애없음(0)/장애있음(1) 비장애가족(0)/장애가족(1)	직업유무	직업없음(0)/직업있음(1)
연령	연령(만) 세	직업유형	고위직(1)/중위직(2)/하위직(3)
수급여부	비수급자(0)/수급자(1)	가구소득	100만미만(1)/100-200(2)/200-300(3)/400-500(5)/500만 이상(6)
학력	초졸(1), 중졸(2), 고졸(3), 대졸이상(4)	거주기간	현거주지기간 ( )부터

8) 모집단의 크기를 알 경우에 정확한 표본의 크기는  $n' = (n \times N / n + N)$ 이므로,  
 $n' = (1003 \times 412,000) / 1,003 + 412,000 \approx 1,001$ 명(양병화 · 강경원, 2004).

## (2) 내생변수

내생변수는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 수준이다. 지역사회응집력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3가지 영역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동네사람을 알고 있는 정도와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의 편안함 정도를 묻는 각 1문항씩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나는 동네 사람들 대부분 알고 있다, 나는 이웃들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alpha$ 은 .755이었다. 지역사회연대감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지역사회 일에 대한 참여의 적극성 정도를 묻는 각 1문항씩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나는 동네일에 대하여 책임의식이 있다, 나는 우리 동네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의사표현 한다),  $\alpha$ 은 .747이었다. 장소애착감은 거주하는 곳에 대한 만족도(뿌리의식)와 소속감을 묻는 각 1문항씩 2문항으로 구성하였고(나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 만족한다, 나는 우리 동네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alpha$ 은 .563 이었다.<sup>9)</sup> 그러므로 지역사회응집력 변수는 총 6문항으로 전체  $\alpha$ 은 .833이었다. 이들 문항들은 Lev-Wiesel(2003)의 지역사회응집력의 설문문항들을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3명에게 문항이 개념을 대표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sup>10)</sup> 변수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리커트 척도이다.

지역사회참여수준은 캐나다 자치연합(2005)의 지역사회참여 지표와 김정민(2001)의 지역사회참여 척도를 응용하여, 투표참여, 지역신문구독, 지역방송시청, 자원봉사활동 단체, 행정지원조직 및 시민단체 등의 지역사회조직 참여경험, 지역사회조직에서의 리더십 경험 유무를 선택하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수는 종합점수를 사용하여 1점에서 5점의 범위를 가지도록 리커트 척도화하였다.

## 3)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관하여는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외생변수(사회 인구학적 배경)와 내생변수(지역사회응집력, 지역사회참여수준)와의 영향력 및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windows용 SPSS 12.0을 이용, 2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로분석<sup>11)</sup>을 실시하였다.

9) Van de Ven and Ferry(1980)는 신뢰도 값이 .60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고 했다(정충영·최이규, 1998 재인용).

10) Lev-Wiesel(2003)은 지역사회응집력을 소속감, 소외감, 연대, 인지된 사회적 지지감, 착근성(rootedness), 사회적 유대의 7개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1) 적합한 경로모델의 조건으로, 첫째 변인간의 관계는 이론에 기초, 둘째 영향력의 방향은 한쪽 방향, 셋째 변인간의 관계가 전부 설정되어야 한다(오택섭·최현철, 2003).

## 4.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연구의 내생변수로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성별구성은 여자가 54.7%, 남자가 45.3%이었고, 평균연령은 37.4세이고, 평균거주기간은 10년 정도이었다. 장애인은 9.2%이었고, 수급자는 6.0%이었다. 학력분포를 보면 대졸이상 59.4%, 고졸 33.1%로서 총 92.5%를 차지하고 있고, 종교가 있는 경우가 60.3%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유형은 중위직이 55.1%로 가장 많았고, 가구소득은 100만에서 200만원 미만이 34.3%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대상자 특성과 관련하여 수급자 6.0%, 장애인은 9.2%이었고,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19.6%이었다(<표 2> 참조).

<표 2>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수	구분	빈도(%)	계	변수	구분	빈도(%)	계
성	남자	454(45.3)	1,003	종교유무	종교 없음	398(39.7)	1003
	여자	549(54.7)			종교 있음	605(60.3)	
장애여부/ 장애가족 여부	장애 없음	911(90.8)	1,003	직업유무	직업 없음	45(7.5)	603
	장애 있음	92(9.2)			직업 있음	558(92.5)	
수급여부	비수급자	806(80.4)	1,003	직업유형	고위직	187(31.0)	603
	수급자	197(19.6)			중위직	332(55.1)	
학력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943(94.6)	992	가구소득	100만미만	166(17.0)	979
		60(6.0)			100-200만	344(35.1)	
					200-300만	221(22.6)	
					300-400만	150(15.3)	
					400-500만	62(6.3)	
	589(59.4)	500만이상	36(3.7)				
연령평균	37.34(9.314)		987	거주기간 평균	10.154(10.69)		957

###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지역사회응집력, 지역사회참여와의 상관관계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연령, 가구소득, 거주기간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력, 직업유형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연대감은 연령, 종교유무, 가구소득, 거주기간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 학력, 직업유형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착감은 연령, 종교유무, 직업유무, 가구소득, 거주기간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수급여부, 직업유형과는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는 연령, 가구소득, 거주기간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 수급여부와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연령과 거주기간,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지역사회응집력 영역, 지역사회참여와의 상관관계

	성	장애 여부	장애 가족 여부	연령	수급 여부	학력	종교 유무	직업 유무	직업 유형	가구 소득	거주 기간
지역사회네트워크	-.030	.001	.002	.309**	-.017	-.232**	.150**	-.009	-.152**	.077*	.358**
지역사회연대감	-.096**	.029	.007	.332**	-.054	-.116**	.133**	.028	-.143**	.075*	.238**
지역사회에착감	-.001	-.002	-.044	.165**	-.081*	-.023	.138**	.076*	-.052	.141**	.106*
지역사회참여	-.156**	-.057	-.026	.242**	-.145**	.050	.050	.007	-.036	.129**	.076*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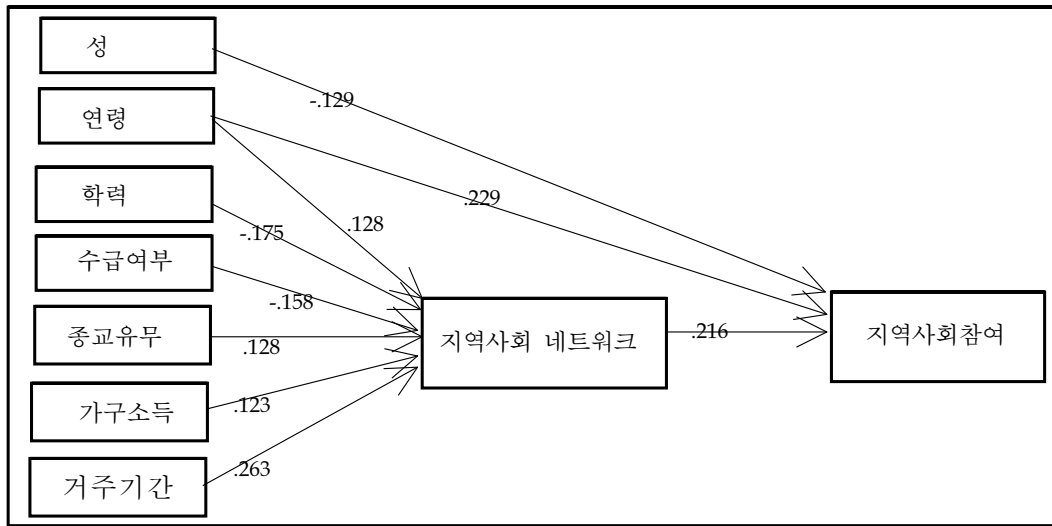
### 3)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경로관계

#### (1)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참여의 경로분석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연령( $\beta=.128$ ), 학력( $\beta=-.175$ ), 수급여부( $\beta=-.158$ ), 종교유무( $\beta=.128$ ), 가구소득 수준( $\beta=.123$ ), 거주기간( $\beta=.263$ ) 이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비수급자인 주민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종교인인 경우에,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 중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거주기간, 학력 순이었다.

지역사회참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변수들은 성( $\beta=-.129$ )과 연령( $\beta=.229$ ), 지역사회 네트워크( $\beta=.216$ )이다. 즉 남자인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 네트워크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참여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연령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또한 지역사회참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참여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된 변수들은 연령, 학력, 수급여부, 종교여부, 가구소득,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 내생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로 분석함.

<그림 3>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참여의 경로분석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16.3%이었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으로 나타났다 (전체효과=.257).

<표 4>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경로분석의 직·간접 효과계수

변수	R <sup>2</sup>	직접효과	전체효과	간접효과
<b>지역사회참여</b>				
성		-.129	<b>-.129</b>	
연령		.229	<b>.257</b>	.0276
수급여부	.163		<b>-.034</b>	-.034
종교유무			<b>.0276</b>	.0276
가구소득			<b>.003</b>	.003
거주기간			<b>.0057</b>	.057
사회적 네트워크		.216	<b>.21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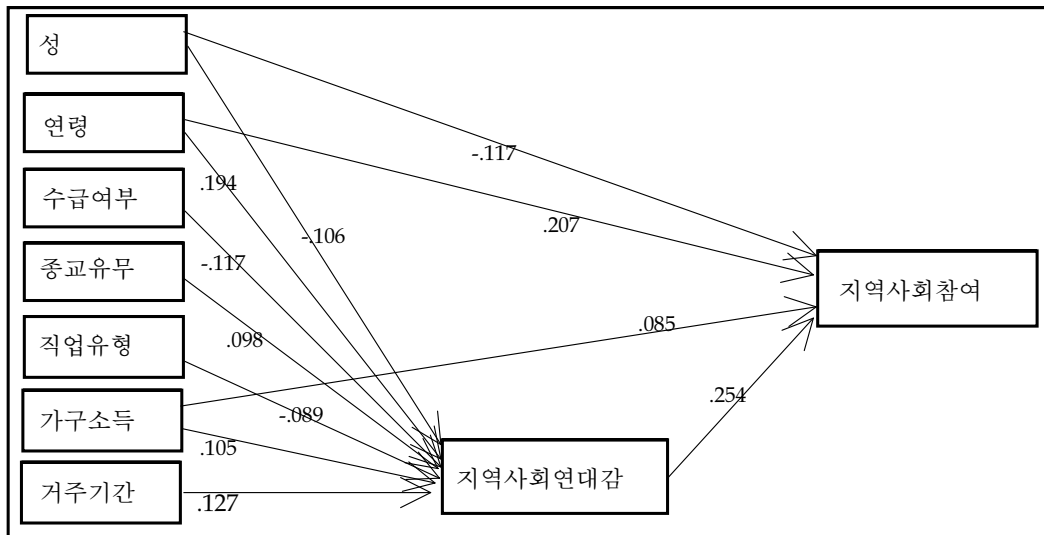
(2) 지역사회연대감과 지역사회참여와의 경로분석

지역사회연대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성( $\beta=-.106$ ), 연령( $\beta=.194$ ), 수급여부( $\beta=-.117$ ), 종교유무( $\beta=.098$ ), 직업유형( $\beta=-.089$ ), 가구소득( $\beta=.105$ ), 거주기간( $\beta=.127$ )이었다. 즉 남자인 경우에,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연대감의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비수급자인 경우, 종교인 경우, 직업 유형이 고위직일수록 지역사회연대감 정도가 높았고, 또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장기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 거주기

간 순이었다.

지역사회참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변수들은 성( $\beta=-.117$ ), 연령( $\beta=.207$ ), 가구소득( $\beta=.085$ ), 지역사회연대감( $\beta=.254$ )이었다. 즉 남자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연대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들 중 지역사회연대감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연령과 거주기간은 지역사회연대감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에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지역사회연대감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된 변수들은 성, 연령, 수급여부, 종교유무, 직업유형, 가구소득,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 내생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로 분석함.

<그림 4> 지역사회연대감과 지역사회참여의 경로분석

<표 5> 지역사회연대감과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경로분석의 직·간접 효과계수

변수	R <sup>2</sup>	직접효과	전체효과	간접효과
<b>지역사회참여</b>				
성		-.117	-.386	-.0269
연령		.207	.256	.049
수급여부	.184		-.0297	-.0297
종교유무			.0249	.0249
직업유형			-.023	-.023
가구소득		.085	.112	.0267
거주기간			.032	.032
지역사회연대감		.254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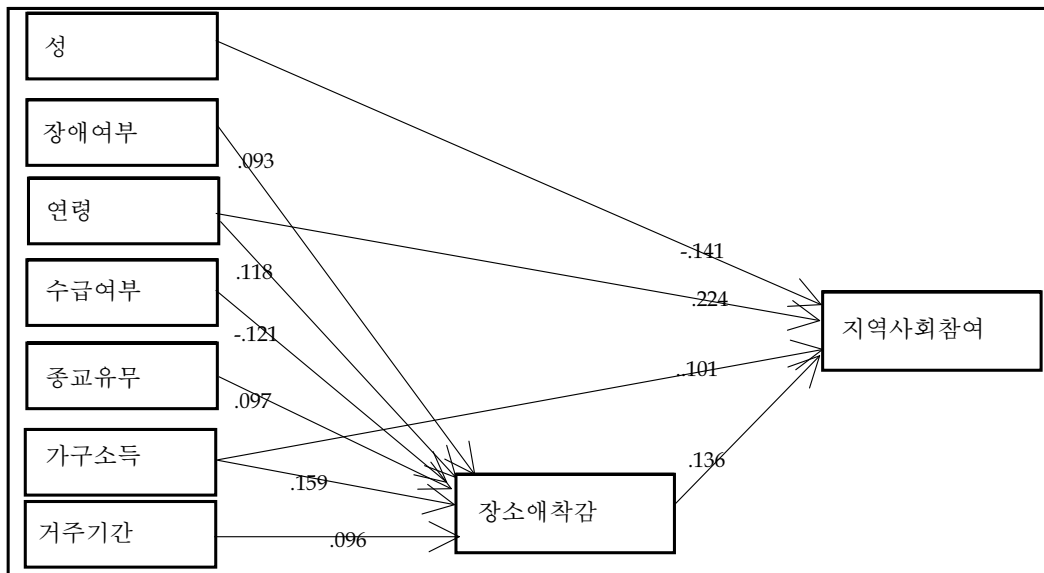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18.4%이었고,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참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성이었다(전체효과=-.386).

**(3) 장소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의 경로분석**

장소애착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장애여부( $\beta=.093$ ), 연령( $\beta=.118$ ), 수급여부( $\beta=-.121$ ), 종교유무( $\beta=.097$ ), 가구소득( $\beta=.159$ ), 거주기간( $\beta=.096$ )이었다. 즉 장애인인 경우에, 연령이 높을수록, 비수급자인 경우, 종교인인 경우에 장소애착감이 높았다.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장기일수록 장소애착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소득, 수급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 $\beta=-.141$ ), 연령( $\beta=.224$ ), 가구소득( $\beta=.101$ )과 장소애착감( $\beta=.136$ )이었다, 이들 중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이었다. 그리고 연령과 가구소득은 장소애착감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애착감을 통하여 지역사회참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장애여부, 연령, 수급여부, 종교유무, 가구소득, 거주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내생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단계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경로 분석함.

<그림 5> 장소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의 경로분석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 지역사회참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의 총설명력은 13.8%이었고, 이중 가장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연령으로 나타났다(전체 효과=2.40).



&lt;표 6&gt; 장소애착감과 지역사회참여에 대한 경로분석의 직·간접 효과계수

변수	R <sup>2</sup>	직접효과	전체효과	간접효과
<b>지역사회참여</b>				
성		-.141	<b>-.141</b>	
장애여부			<b>.0126</b>	.0126
연령	.138	.224	<b>.240</b>	.016
수급여부			<b>-.016</b>	-.016
종교유무			<b>.132</b>	.132
가구소득		.101	<b>.123</b>	.0216
거주기간			<b>.013</b>	.013
장소 애착감		.136	<b>.136</b>	

## 5.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

본 연구는 지역사회문화 중심의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역의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이자 문화적 자산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애착감의 사회 인구학적 결정요인을 밝히고, 또한 경로분석을 통하여 주민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 지역사회응집력, 지역사회참여로 이어지는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응집력의 세 가지 영역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연대감, 장소애착감은 모두 지역사회참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었고, 이 중 지역사회연대감을 통한 지역사회참여 경로모형이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이는 지역사회참여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지역사회응집력을 활용할 때,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고려한 지역사회연대감 증진전략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둘째, 지역사회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는 연령, 수급여부, 종교유무, 직업유형, 가구소득, 거주기간으로 나타났고, 이 중 연령, 거주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었다. 즉 한 사회에 오래 거주하고, 연령이 높은 주민 보통 노인인 경우에 지역사회연대감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집단의 연대감을 지역사회복지 자산화 하는 강점중심의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특히 노인이 인적자원으로 새롭게 가치화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여성은 지역사회참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참여 증진의 주요 목표대상이 의도적으로 여성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참여 증진의 전략을 제시하면 크게 주민지향의 지역사회연대감 형성 전략과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 1) 주민지향의 지역사회연대감 형성 전략

주민지향의 지역사회연대감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참여 증진 전략은 주민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므

로, 지역사회연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특성인 연령, 거주기간, 소득수준, 종교유무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주민 특성을 고려하면 ①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②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전략 ③ 저소득 주민 소득 증진 및 창출 전략 ④ 종교 및 종교 구성원의 지역사회책임성 증진 전략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다.

### (1)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

노인의 지역사회 지식 활용과 나눔 전략은 기본적으로 노인지식의 가치화와 연결된다. 지역사회지식(local knowledge)은 지리적 지역사회와 역사 속에서 내재화되는 주체적 지위(subject position)와 관련된 것으로(Fraser and Leofsky, 2004: 7), 특성상 한 지역사회에 오래 거주하고, 또 최종 정착한 경우가 많은 노인들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지역사회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참여 방안으로 노인 지역사회포럼, 노인 시민기획단 및 위원회 활동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스스로 사회조사를 선도하고, 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실행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참여형리서치(Juska, Poviliunas and Pozzuto, 2005: 8)는 노인의 지역사회지식이 정확히 전달되면서 아울러 사회학습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활용 가능한 노인 지식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지식의 지도화(mapping)는 지역사회 지식의 나눔과 창출을 위하여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노인의 지역사회지식의 나눔을 위하여, 우선 노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초점은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리더십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때에 리더십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관계적 리더십(relational leadership)과 관련된다(Armstrong, 1998; Reed, 2001; Kirk and Shutte, 2004: 236 재인용). 즉 통합성과 다양성의 참여의 원칙 하에, 노인이 다른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공동 가치와 열망을 나누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연결적 리더십(connective leadership)을 갖추고 또한 완전한 목적의식과 자신감, 권위를 가지고 다른 참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집단적 임파워먼트(collective empowerment)를 갖춘 역량 있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말한다(Kirk and Shutte, 2004: 237-247). 그러므로 리더십 개발 훈련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조직화, 공적 연설 등의 시민적 기술 습득에 초점 두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시민적 기술 습득은 우리라는 연대감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uenzi, 2005). 한마디로 노인은 지역사회복지 계획과정상에서 다른 주민들 및 계획 전문가들과의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보장받아야 하고, 또한 참여적 수단들을 통하여 노인의 지역사회지식이 다른 주민 및 전문가의 지식과 수렴되어야 한다(Fraser and Leofsky, 2004: 9-10).

### (2)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정착 유도 전략은 주민의 기존 주거지에 대한 애착과 최종 주거지 선택 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주거지에 대한 애착 및 소속감을 발생시키는 지역사회 특성은 이웃과의 친밀도와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의 존재유무를 나타내는 문화성(최열·임하경, 2005: 62)으로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웃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부적으로 주민들 간의 긍정적인 접촉과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을 구비하고, 이들 시설들을 활용한 운동회, 마을 축제 등의 지역사회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친밀성 및 지지적 네트워크, 공동의식, 지역사회에 대한 매력과 자부심을 높여 현 거주지의 장기기간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여가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체육공간을 공적 차원에서 읍·면·동 단위를 기본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고려할 점은 소지역사회간 시설 수와 시설의 질적 수준의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은 주거지선택의 문제인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주거지 선택은 가계재정력과 가구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경제 환경, 교육 환경, 교통 환경, 의료 환경, 치안 환경, 자연 환경, 문화 환경, 사회복지서비스 및 편의시설 등 일정수준의 생활편의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위한 전반적 사회·환경 개선은 일차적으로 거시적 정책 수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자가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고, 또한 자가 소유 시 최종 정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시적 정책과 계획의 초점은 우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무주택자를 위하여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 주택 공급을 높이면서 주택가격의 단계적 하락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주택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 도시근로자 소득 상승보다 월등히 높은(하성규, 2003)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계층, 도시빈민 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택의 사회재로서의 성격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가 매우 필요하다. 주거복지를 위하여 공급주체로서 비영리 부문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예로 주택협동조합 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필요한 금융, 조세, 자재, 토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개별 지역사회들의 특성에 근거한 주거환경 개선의 차별적 접근이 또한 필요하다. 하성규·김재익(1993)의 연구에서 전국적 수준과 비교했을 때 도시지역은 공해, 범죄발생, 주택환경 불량,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편의시설 격리, 교통사정 불편, 교육여건 불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은 지역사회 안전성과 쾌적성을 목표로 주거환경 개선 전략을 추진해야 하고, 농촌지역은 일정수준의 생활편의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에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택이 재산 증식을 위한 투자물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라는 주민 인식의 전향이라고 할 것이다.

### (3)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저소득 계층의 소득 증진 및 창출 전략을 통해 지역사회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선 고용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고용정책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연령에 대한 차별 폐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강화, 그리고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효율적인 노동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등(김교성, 2005)을 통해 고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실업률이 매우 높은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 적합형 직업훈련 제공과 작업환경의 편의시설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

므로, 장애인의 인적자원개발과 인식변화와 같은 사회 환경 변화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단위의 소득창출활동은 크게 지역브랜드 창출 및 활용 전략과 지역의 시민적 기업가정신 증진(civic entrepreneurship)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브랜드 창출을 위하여 그 지역사회의 유·무형의 문화적 유산과 자연환경의 활용 및 지역특산품의 재가치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의 1984년 산촌의 특성을 높여 도시와의 교류를 높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던 리프레시후루사토(refresh ふるさと)와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 오스트리아의 1972년 산간지역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하고 경제적·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산악 지역 농민 특별 프로그램(Mountain Farmers Special Programme; MFSP), 프랑스의 지역 자연공원(Regional Nature Park; RNP), 일본의 다나다(tanada), 아스카마을 등의 어메니티 운동(amenity)들은(오현섭·김정섭 역, 2002)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운동들은 지역사회의 풍부하고 다양하며 또한 고유한 문화적 자산의 재발견과 가치화, 지역사회참여, 지역사회소득 창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마을의 특성과 유산을 활용한 축제 등이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시도되고<sup>12)</sup>, 정부의 지원책도 나온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운동 및 접근의 성공이 인적 자원의 개발과 제공에 결정된다는 것으로, 공급처로서 지역 대학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일본의 모 대학에서는 마을 만들기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 대학에서는 정규학과보다 성인 평생교육 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적 기업가정신 증진은 경제개발 정책적 지향보다 사회적 네트워크와 접촉 등의 사회적 요소를 활용한 접근이 지역주민 고용 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최근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지역경제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회조직간의 네트워크와 접촉, 정보공유,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협력적 노력이 고용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Green, 2003). 이를 위하여 지역 내의 상공업자들의 시민자격으로서 자원봉사조직을 비롯한 경제 조직 외의 지역사회조직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업가정신과 지식들도 지역사회의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서, 전체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유되고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모든 복지자원이 연결되는 허브가 되어야 하고, 구성원으로서 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의 지역경제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4) 종교조직과 종교구성원의 지역사회 책임성 증진 전략

종교조직과 종교구성원들의 지역사회 책임성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종교는 문화의 한 영역으로서,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념체계와 실천 전통 속에서 구속되는 종교 활동을 넘어, 전체로서의 우리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지도하는 가치 및 신념과 관련된 영성(spirituality)을 추구하는 것이다. 영성적 접근에서 복지는 다른 사람의 복지에 대한 깊은 민감성 및 자각에서 나타나고, 사회정의, 경제적 공평성, 인권,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등의 상호 관련된 이슈들을 통합하는 전체적 시각을

12) 경남산청의 안솔기 마을, 무주 진도리의 귀농마을, 경남 함양의 청미래 마을, 장수군의 지원으로 시작된 전북 장수하늘소 마을 등이 있다.

강조한다(Chile and Simpson, 2004: 319-321). 이를 종교조직과 종교 구성원에 적용하면, 각 종교조직의 역할은 신도 중심의 상호원조 및 포교활동을 넘어 전체 지역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단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험의 협력, 공감과 이해에 바탕한 공유된 지식을 표현하는 공동의식, 공적 및 개인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윤리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Chile and Simpson, 2004: 325-327). 이러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위한 플랫폼이 되기 위하여, 종교조직과 종교구성원들은 '문화적 역량성'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적 역량성은 우선 이질적인 사람과 문화와의 차이 즉 성, 연령, 인종, 민족, 생활스타일,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및 다른 사람들의 가치 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개방적 커뮤니케이션, 적극적 경청,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역량을 필요로 한다(Miley, O'melia, and DuBois, 1995: 146). 무엇보다도 개인 속에 일상화된 자신의 편견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개인적 자각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성은 각 종교와 종교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에 대하여 무차별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성의 교육기관 및 실천가로서의 역할을 보장할 것이다.

## 2) 여성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

최근에 여성참여가 제도적·문화적으로 많이 격려되고, 또한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책결정 및 계획과 의사결정에 대다수의 여성들이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장애를 당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Ajayi and Otuya, 2005: 2). 그러므로 현재의 의도적으로 실행되는 각종 위원회 등의 제도적 여성참여의 의무적 할당제는 일정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 여성참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고려할 점은 각 여성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여성의 이동거리 제한을 고려하여 참여 접근성의 차별화와 용이성을 함께 보장해야 할 것이다. 즉 저학력 여성, 편모 여성, 전업주부 및 일용직 여성, 또는 학부모, 가족 부양자 및 보호자 등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역할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린 생활환경 내에 위치한 학교,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마을 회관 등의 시설 활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 참여의 질적 수준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직 내에서의 리더십 경험을 위한 임파워링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천가들은 여성의 참여를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정기적 방문, 프로그램 시간 중에 호소, 승인 등의 전략과 적극적 참여 여성들에 대한 칭찬과 상장, 급부 제공, 특정 활동의 면제 등의 보상(Ajayi and Otuya, 2005: 16-17)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지역사회응집력과 관계를 통한 지역사회참여 증진은 크게 노인의 지역사회지식 활용과 나눔전략, 주민의 장기거주 및 최종 정착 유도 전략, 저소득계층의 소득증진 및 창출 전략, 종교 조직과 구성원의 지역사회 책임성 증진 전략을 통한 ‘주민 지향의 지역사회연대감 증진 전략’과 ‘여성 참여의 의도적 확대 및 적합성 전략’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연구 및 실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자산으로서 아동참여에 대한 주민 및 지역사회복지실천가들의 인식전환과 이들의 능력과 지식을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에 반영시키려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아동의 사회참여는 주로 온라인 의사소통 경로를 통하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동들도 자신과 관련한 문제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정책 및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 실천계는 이러한 아동들의 참여 및 참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방안으로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조사, 지역문제에 대한 아동포럼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응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응집력을 실제적 개념으로 인정하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응집력 증진센터 등의 기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사회응집력 증진을 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개입을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개입을 위하여 지역사회응집력에 대한 더욱 엄밀한 사정과 평가지표의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의 사회통합을 위한 영국의 지역사회응집력 증진 정책은 좋은 벤치마킹사례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응집력은 시민정신, 관용, 다문화성 및 개방성과 함께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응집력은 그들을 구분하는 경계를 갖는 심리적 혹은 지리적 경계를 갖는 일종의 사회 시스템으로서, 적정 정도를 넘어서면 전체 사회에 해가될 수 있고 또 외부에 대하여 배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응집력은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정책이 지역사회응집력을 증진시키고자 할 때 전체 사회 내에서 건전한 균형을 보장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주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 한계를 가진다. 추후 전국적 표본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대기. 2003.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농촌사회』. 13: 7-40.
- 김교성. 2005. “실업자의 재취업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2): 253-275.
- 김재현. 2003. “하키선수의 팀 만족과 응집력, 인지 수행간의 관계 분석”. 『한국 스포츠리서치』. 14(1): 297-307.
- 김정민. 2001.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 활력의 활성화 방안: 목포시를 사례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1): 25-44.
- 남상희. 2001. 『공간과 시간을 통해 본 도시와 생애사 연구』. 서울: 한울아카데미.
- 류기형. 2004.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 『사회복지연구』 13: 35-6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new governance 실천 방안』. 정책토론자료집.
- 신영전·김명희·전희진·김석현 역, 2003. 『사회역학』. Berkman, L. F., and I. Kawachi. 2000. *Social Epidemiology*. 서울: 한울.
- 양병화·강경원. 2000. 『사회조사분석사』. 서울: 성안당.
- 오택섭·최현철. 2003. 『사회과학데이터 분석법②』. 서울:나남출판.
- 오현석·김정섭 역,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서울: 새물결출판사.
- 윤준상. 1994.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운동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6(2):171-180.
- 이영철·서화자 역, 1996. 『지역복지계획론』. 가와무라 무사요시. 1993. 地域福祉計劃論. 서울:홍익재
- 이정모. 2001. 『인지심리학』. 서울: 아카넷.
- 이희선·윤상오. 1996. “정책정보의 활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6(1): 85-110.
- 정충영·최이규. 1998.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법문사.
- 최열·임하경. 2004. “Poisson regression을 이용한 장소애착 결정요인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정기학술대회: 327-337.
- . 2005.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 분석”. 『국토계획』. 40: 53-64.
- 하성규. 2003. “신자유주의시대 주거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한국지역개발학회』. 15(4): 71-96.
- 하성규·김재익. 1993. “중소도시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한국지역개발학회』. 5(1): 141-156.
- 한상일. 2003. “미국의 주민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발표집: 407-419.
- 홍두승·구해근. 1993. 『사회계층·계급론』. 서울: 다산출판사.
- Ajayi, R., and N. Otuya. 2005. "Women's participation in self-help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in Ndokwa agricultural zone of Delta, Nigeria."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Feb: 1-21.
- Berner, E. and B. Phillips. 2005. "Left to their own devices? Community self-help between alternative development and neo-liberal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1): 17-29.
- Campbell, K. E. and B. A. Lee. 1992 "Sources of personal neighbor networks: social integration, near or time". *Social Forces* 70: 1077-1110.

-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 Chile, L. M. and G. Simpson. 2004. "Spirituality and community development: Exploring the link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llective."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9(4): 318-331.
- Connelly, S. 2006. "Looking inside public involvement: how is it made so ineffective and can we change thi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1): 16.
- Dekker, K. and G. Bolt. 2004. "Social cohesion in heterogeneous neighbourhoods in the Netherlands: the cases of Bouwlust and Hoograven." *the city futures conference Chicago*: 1-23.
- Dinham, A. 2006. "Raising expectations or dashing hopes?: Well-being and participation in disadvantaged area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Jan: 1-13.
- DiPasquale, D. and E. L. Glaeser. 1999 "Incentives and social capital: are homeowners better citizen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5: 354-384.
- Dochery, I. and R. Goodlad. 2001. "Civic culture, commun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contrasting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38(12): 2225-2250.
- Forrest, R. and A. Kearns. 2000. "Social Cohesion, Social Capitals and the Neighbourhood." *Urban Studies* 38(12): 2125-2143.
- Fraser, J. and J. Lepofsky. 2004. "The use of knowledge in neighbourhood revitalizatio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9(1): 4-12.
- Green, G. P. 2003. "Civic Involvement, Organization tie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5(1): 1-17.
- Juska, A., A. Poviliunas, and R. Pozzuto. 2005. "Rural grass-roots organizing in eastern Europe: the experience from Lithuania."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Feb. 25: 1-25.
- Kearns, A. and R. Forrest. 2000. "Social cohesion and multilevel urban governance." *Urban Studies* 37: 995-1017.
- Kirk, P. and A. M. Shutte. 2004. "Community leadership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9(4): 234-251.
- Kotval, Z. 2005. "The link between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 and theory: intuitive or irrelevant? A case study of New Britain, Connecticu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1): 75-88.
- Kuenzi, M. 2005. "Non-formal educ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Senegal."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Feb: 1-13.
- Lahiri-Dutt, K. 2004. "I plan, you participate: A southern view of community participation in urban Australia."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9(1): 13-27.
- Lev-Wiesel, R. 2003. "Indicators constituting the construct of 'perceived community cohesion'."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8(4): 332-343.
- Miley, K. K., M. O'melia, and B. L. DuBois. 1995. *Generalist social work: An empowering approach*. Mass: A simon & schuster com.
- Morrison, N. 2003. "Neighbourhood and social cohesion: experience from Europe." *International Planning Studies* 8(2): 115-138.
- Mustard, S. and W. Ostendorf. 1998. *Segreg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 welfare state: the case of Amsterdam*. London: routledge.



- Phal, R. E. 1991. "The search for social cohesion: from Durkheim to th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32: 345-360.
- Procter, D. E. 2005. "Building community through communication: the case for civic communion."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35(2): 53-72.
- Stocker, R, D. G. Green and D. Newth, 2001. "Consensus and cohesion in simulated social network." *Journal of Artificial Societies and Social Simulation* 4: 1-15.
- Vandermissen, M. H. 2003. "Mobility, accessibility and social cohesion." *Cahiers de Geographie de Quebec* 47(131): 201-222.
- Vertovec, S. 1997. "Social cohesion and tolerance." *the Second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Copenhagen*: 1-25.
- Williams, C. C. 2005. "A critical evaluation of hierarchical representation of community involvement: some lessons from the UK."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1): 30-38.
- Williams, L. 2004. "Culture and community development: Towards new conceptualizations and practice."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39(4): 345-349.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1-24.
- Ziersch, A. M., F. E. Baum, C. MacDougall, and C. Putland. 2005. " Neighbourhood life and social capital: the implication for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60: 71-86.
- 캐나다자치연합(FCM), 2005. <http://www.fcm.ca>
- 제주도청. <http://www.jeju.go.or>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Cohes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for the Foundation of Community Welfare Planning

Kang, Dae-Sun

(Pusan National University)

Ryu, Ki-Hy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Until now,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community participation has been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 legal institutionalization, but these have not brought substantive effects. So, the need of strategies utilizing the community culture which was formed by the residents and community has been issued on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ategies utilizing the community culture. So, it was identified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ffected the community cohesion (community social networks, community solidarity, place-attachment), that is called community spirit and culture. And through path analysis, it was analyzed the relationship among residents' socio-demographic background, community cohes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the community cohesion's three elements altogether affected positively to the community participation. When regarding the residents characteristics, the strategies for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relating to community solidarity was most relevant. the socio-demographics affecting to community solidarity are gender, age, the beneficiary, religion, job type, household income, the length of residence. the women was low at level of participation.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 community cohesion are the age, the residence du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levant strategies or approaches for increasing community participation are as follows. : using and sharing of the aged's community knowledge, making the long term living and final settlement of community residents, increasing and creating the income for the low-income residents, increasing of religious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responsibility to

community, and the purposeful extension and relevancy of women's participation.

Ultimately,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ormulate the residents- cultural asset driven's community welfare planning.

Key words: community cultural asset, community spirit, community cohesion, community participation.

[논문접수일 2006. 8. 4. 게재확정일 2006. 9. 23.]